

# 도시건축의 맥락성과 표징성의 3가지 실증

- 고운빌딩
- 대한 상공회의소 회관
- 국제센타 빌딩

박길용  
국민대학교 건축과 조교수

## 3가지 건축의 비교 의미

84년도 서울시 건축상 수상작품중에는 3개의 업무용 건축이 포함되었다. 금상으로서 국제센타 빌딩과 은상으로서 그룹·가의 고운빌딩, 그리고 동상으로서 정림건축의 대한상공회의소이다.

이 3개의 건축이 모아진 것은 그 건축적 질량의 평가가 적격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나, 여기에는 도시건축의 긍정적 가능성이라는 공통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면서 이 3개의 건축은 각기의 독자적인 조건과 그 해석의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여기에서는 이들 3개 건축의 비교관찰을 기술의 중심으로 하고자 한다.

도시환경측의 입장에서 업무용 건축이 떠올 보편타당한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환경조건에 따른 콘텍스트의 해석이다.

이 콘텍스트의 해석이란 일차적으로 주변조화의 개념에 두게 되며 거기에는 도시건축이면 보편적으로 기대하게되는 조형상의 항성(恒性)이 중심이 된다. 다시말해 우리가 도시가로에 대해 일상적으로 인식하게되는 연속적실체로서 이미지의 파악이다.

반면에 오더니즘 이후 건축의 식별성(識別性)나아가서는 랜드마크적인 존재로의 표현욕구는, 그것이 비록 이차적이라하더라도 건축가로서는 쉽게 포기되지 않는 한 국면이 남는 것이다. 또한 먼저 이야기된 「연속적 항성」의 입장과 「개별적 표현성」이라는 2원적(二元的) 국면은 해석하는 작가의 조형의지에 따라 크게 달리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3개 건축의 비교관찰도 이러한 2

원적 해석에 중심을 두고 관찰하는 것이 의미로울 것이다.

## 도시건축의 맥락성

일반적으로 이야기되는 콘텍스트의 의미는, 이미 있는것과의 적합성, 새로운 것과 또다른 새로운것의 합치, 또는 새 것과 낡은 것의 콘트라스트, 지역적 환경과의 조화로서 이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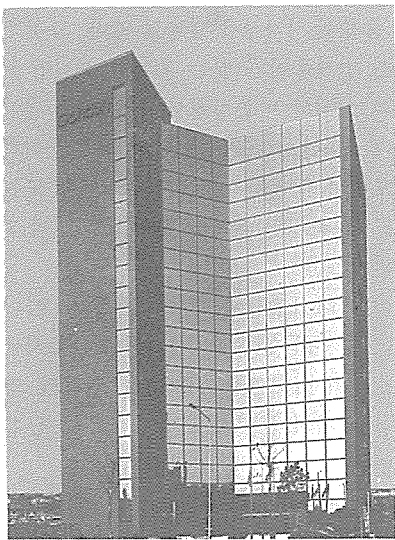
특히 도시건축에 있어서 조형이라는 본질이 어떤 개체적(個體的)의 의지에 따라 절대화되기 보다는, 주변에 상대하여 고려될 수 있는 적합성(Fitness)로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전체로서 단위」라는 이해는 기존의 것에 모든 의사를 맞추자는 것, 또는 천편 일률적인 통일이라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타운스케이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타당하다고 인식되는 콘텍스트가 디자이너의 독특한 개성을 희생시키지 않고 현존하는 질서와의 조화를 무시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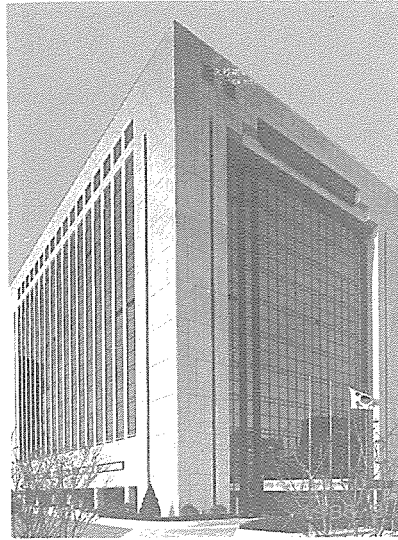
이러한 개념은 실제 제작과정에 있어서, 조형의 시각을 가로(街路) 측에 두느냐, 아니면 당해 토지의 독자적인 위치에 두느냐에서 부터 판별되기 시작한다.

고운빌딩의 경우 이 건축은 역삼로라는 가로측에서의 경관과 메스의 입장을 분명히하고 있다. 이는 이 건축이 가로측으로부터 정면성(正面性)을 중심시각으로 잡고 있기 때문이다. 더우기 이 작가는 좌우측면과 후면에 대한 조형을 거의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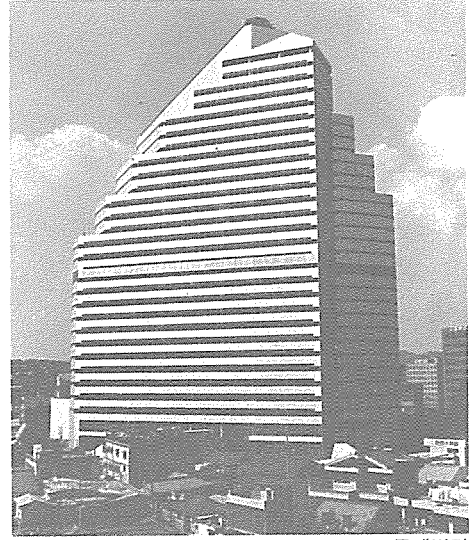
이 이유는 좌우측면과 후면이 다른 대지로서 연속되기 때문에 곧 다른 건축이



고은빌딩



상공회의소



국제빌딩

이 3면을 채워오리라는 예상에서 가능한 것이다. 현재로서는 주변이 아직 개발되지 않아, 랜드마크적인 존재로 보이나, 이 역삼로의 개발이 어느정도 완료될 시점에서 이 건축은 대로로의 대향면이 정면만이 시각적으로 남게 될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태세는 만약 유사한 볼륨으로서 주변이 채워질 경우 합당한 연속적 가로에의 실체를 얻는데 유리하다. 또한 이 정면으로서 조형은 타일소재의 메스와 밀러그래스의 콘트라스트라는 자기억제속에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반면 대한상공회의소는 3면이 노출되는 가로조건에서 남대문을 향한 태평로 쪽에 정면성을 의식하고 있다. 다시말해 부정형한 대지위에서 인공분수 - 선관가든 - 주현관에 이르는 축을 견지하며 동시에 측면이 되는 남북쪽을 무시할 수 없는 조건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건축은 정면의 대칭적 면상을 확연히 하면서, 동시에 정면의 취

급과는 달리 측면성을 분명히 하는 태세에 있다. 물론 측면의 조형은 정면보다 부차적(副次的)으로 취급할 수록 정면의 의사는 보다 분명히 보장된다.

그러나 이 건축의 내부기능에 따른다면 장변인 남북면보다는 단면인 동쪽(태평로 측)이 측면이다. 이와같이 내재하여 있는 골격의 기본속성을 거슬러서라도 이 건축은 남대문로타리를 향한 정면축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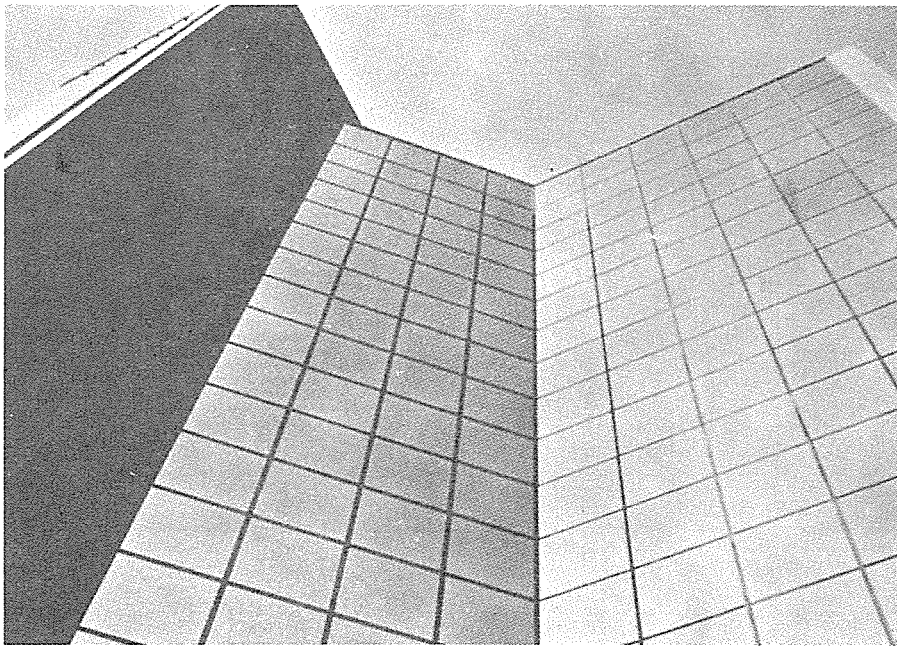
동시에 이 정면성은 큰 구형의 면상에서 그 대칭적의도와 크라식한 의사를 내포하려하고 있다. 그것은 전제된 바와 같이 4면이 다 같이 유니버설하게 취급될 소질이 있으면서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얼굴을 가지려는 의사가 분명하다. 그리고 그 표정은 어느정도 뷰로크라틱하거나 클래식한 취미를 은유하고 있다.

이미 잘 알려져있는 국제센타 빌딩의 다원적 표징(多元的表徵)은 한강 - 용산로간의 랜드마크로서 독자적 존재이다.

일상적으로 도시건축에 대해 선입되는 4面性에 대해 대각선으로 보충, 절삭되어가는 평면은 다시 수직적으로 변화하여 간다.

이미 이 개념에서 부터 우리는 이 건축이 한강로에 대한 도시축성(都市軸性)을 무의미하게 하고 있음과 동시에 자신의 다이나미즘을 극대화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사무소 건축에서는 쉽게 설득되지 않는 표현성까지를 띄우며 성과된 이 의외성(意外性)은 자신의 주장보다 오히려 한강로간의 랜드마크로서 가치를 두게 한다.

여기에는 어떤 정면성의 식별도 없고 전체의 윤곽을 동시에 떠올릴 시각도 형성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외관에서 수평 띠벽과 유리의 커로 연속되는 포장(表裝)은 어느정도 리듬을 갖추면서도 연속적이기 때문에 어떤 위치에서도 자신만의 항성(恒性)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또한 이 대단위의 메스가 장황하지 않으면서도 즐거운 타운스케이프



고은빌딩

를 창출하는데에 의미롭게 부각되는 점이다.

이상의 도시건축이 가로조직에 대해 갖는 성격은 어느것이 가치, 반가치로운 것이냐는 평가를 의미있게 한다. 이것은 이 세가지의 건축이 도시조직에 대해 갖출 수 있는 유형별 실증이기도 하거니와 그들의 각각 표현적의도에 있어서 역시 그러하다.

만약 모더니즘의 합리주의적 가치를 인정한다면, 그것이 놓치고 있는 건축적 풍요로움에 대한 실책역시 분명한 것이다.

만약 우리에게 있어서 크래식한 회귀적 의도가 이 막연한 도시의 표정을 다시 환기시켜 줄 수 있다면 그것은 충분한 가치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

아니면 현대건축에 있어서 하이테크 노로지가 갖는 표현성의 기능을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탐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최소한도 두가지의 입장, 즉 도시맥락의 구성인자로서 건축적 형성의 입장과 랜드마크로서 독자적 입장이 인정된다면, 이 각각의 의사는 분명할수록 좋다. 다시말해 오히려 어느 입장도 아닌채 시각적 혼돈이 되거나, 무기력한 타운스케이프의 요인뿐 일 때, 그 건축의 환경적 불가치는 쉽게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도시건축의 표정성

고은 빌딩의 외곽 조형은 모더니즘의 연속선상에 있으면서 큰 그릿드의 반사유리와 타일 소재의 솔리드 부위(部位)를 대비시키고 있으므로 최소한도 모더니즘에서의 일상적 방법에서 보다는 보

다 풍부한 시각성을 갖추고 있다. 그것은 우선 반사유리가 갖는 총체적 소질인 허상과 실상의 이중성에서 보장받은 깊이이다. 또한 코어와 사무소공간을 분리하다보니 얻게된 대각선상의 연결복도는 135°로 확대된 외관의 팽대감을 얻게 되었다.

이는 대지조건에 대한 해석상의 아이디어로부터 얻게 된 결과이나 동시에 최소한의 소재로서도 경직될 외관의 염려를 배제하며 시각적 감성(感性)을 유지한다는 가능성을 전달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클래식한 은유는 극히 억제되어 취급되고 있으나, 이 건축의 분명한 의사이다.

즉 대칭성이 갖는 엄정함과 함께 굴곡으로 내밀어 오는 유리의 보이드와 반면 굴곡으로 들어내 가는 석재의 솔리드가 화합하는 경계에서 드러나는 형상화의 과정이 그것이다.

석재에 대한 우리의 선입관으로서 감각도 그러하거니와, 대범한 조형상의 무게와 함께 단순한 상업건축에서 보다는 상공회의소라는 건축주 표정이 건축가의 의사와 타협된 결과일 수도 있다.

국제센타빌딩의 조형의지가 취한 부루탈리즘(Burtalism)은 분명히 도시의 활력과 생동감에서 우성이다.

그것은 비단 도시가 갖게 마련인 보수적인 관점에 비교하여, 훨씬 더 쾌감있는 일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분명하게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인식은 이와같은 카타르시스는 매우 간헐적이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최소한도 용산한강로 축에서 이러한 자태는 이 건축 하나만으로서 충분하다.